

윌 스미스, '오스카 폭행' 2년 만에 깜짝 무대

할리우드 배우 겸 가수인 윌 스미스(55)가 '오스카 시상식 폭행' 사건으로 불의를 일으킨 지 2년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다.

스미스는 14일 밤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대규모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에서 콜롬비아 가수 J 발빈의 공연 무대에 카메오로 등장해 자신의 1997년 히트곡인 '멘 인 블랙' (Men in Black)을 불렀다. 스미스는 영화 '멘 인 블랙' 시리즈에서 동명의 주제곡을 직접 불러 1998년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다.



▲ 윌 스미스(오른쪽)가 J 발빈의 공연 무대에 카메오로 등장해 자신의 히트곡 '멘 인 블랙'을 부르고 있다. 사진=instagram/entertainmenttonight

은색 수트를 입고 등장해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스미스가 공개적인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2년 3월 말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린 폭행 사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스미스는 시상자로 나온 록이 탈모증을 앓는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를 농담 삼아 놀리자 무대 위로 올라가 그를 폭행했다.

이후 시상식을 주최하는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스미스에게 10년간 시상식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스미스는 온라인 동영상상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사과한 뒤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번 코첼라 공연에서 옛 영화 속 의상과 같은 걸

뉴진스 '슈퍼 샤이',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



▲ 걸그룹 뉴진스. 사진=하이브

걸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슈퍼 샤이' (Super Shy)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5억건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16일 밝혔다.

뉴진스의 두 번째 미니음반 '겟 업' (Get Up)의 트리플 타이틀곡 가운데 하나인 '슈퍼 샤이'는 지난 14일 현재 누적 5억67만1천157회 재생됐다. 이는 'OMG', '디토' (Ditto), '하이프 보이' (Hype Boy)에 이어 뉴진스 자체 통산 네 번째 5억 스트리밍 곡이다.

'슈퍼 샤이'는 저지 클럽 리듬과 신나는 비트 기반에 퐁퐁 튀는 사운드가 인상적인 노래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각각 8주, 9주간 머물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뉴진스는 지금까지 발표한 12곡 전부가 스포티파이에서 1억회 이상 재생됐다.

카카오엔터-빌보드 파트너십 체결

한국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유명 음악지 빌보드와 손을 잡고 K팝을 세계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8일 서울 종로구 자사 종각오피스에서 장윤중 공동대표와 마이크 반 빌보드 사장, 김유나 빌보드코리아 발행인이 전날 만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미국 본사가 K팝 관련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카카오엔터와 빌보드, 빌보드코리아는 K팝 음악과 연계 콘텐츠를 세계에 소개하고, K팝 가수의 글로벌 활동과 관련한 마케팅, 프로



▲ 왼쪽부터 마이크 반 빌보드 사장, 김유나 빌보드코리아 발행인, 장윤중 카카오엔터 대표.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모션 등을 함께 추진한다. K팝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장 공동대표는 "세계 음악산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빌보드, 빌보드코리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K팝, K엔터테인먼트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빌보드는 올 6월 빌보드코리아 창간호를 내고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힌 후 한국 기업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16일에는 네이버페이와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관련 결제 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숫자퍼즐 정답

| | | | | | | | | |
|---|---|---|---|---|---|---|---|---|
| 4 | 2 | 7 | 8 | 6 | 9 | 5 | 3 | 1 |
| 5 | 6 | 8 | 1 | 3 | 4 | 9 | 2 | 7 |
| 9 | 3 | 1 | 2 | 7 | 5 | 8 | 6 | 4 |
| 1 | 7 | 4 | 9 | 8 | 3 | 2 | 5 | 6 |
| 2 | 8 | 3 | 4 | 5 | 6 | 1 | 7 | 9 |
| 6 | 9 | 5 | 7 | 1 | 2 | 3 | 4 | 8 |
| 8 | 5 | 2 | 6 | 9 | 7 | 4 | 1 | 3 |
| 3 | 1 | 6 | 5 | 4 | 8 | 7 | 9 | 2 |
| 7 | 4 | 9 | 3 | 2 | 1 | 6 | 8 | 5 |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